경기도내 테크노밸리 조기착공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확대

도시주택분야 정책운영방향 발표
관련법령 개정, 신규 후보지 발굴

경기도는 부동산의 공익성 강화 차원에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3기 신도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민선 7기 후반기 도시주택 분야 정책운영방향을 발표했다.

도는 정책운영 5대 전략으로 ▲지역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 다변화 기반 구축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공정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우선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신규사업 후보지 발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평택·파주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에서 시행한 바 있다.

신규 시행 대상에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가 검토되고 있다.

민관공(民官公)이 기획 단계부터 공동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조성 사업도 올해 안에 지구계획수립을 착수하는 등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4개 테크노밸리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늦어도 2022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 고양 일산·광명시흥·양주 테크노밸리는 2022년 공사를 시작해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산업 다변화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민선 7기 '민생현안 1호' 사업으로 주목을 받은 안양 연현마을 인근 옛 아스콘공장 터를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도 본격화된다.

올해 옛 공장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신청하고 내년에 복구대상지 확정 및 공원시설 결정을 해 2023년까지 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편적 주거복지가 구현되고 공익기능이 강화된 도시를 만들어 경제 위기 회복력을 높이겠다"며 "특히 후반기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부족한 곳을 먼저 살펴 그에 맞는 적합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metroseoul.co.kr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하루 앞둔 인천공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3일부터 감염 위험도가 높은 방역강화 대상국가 외국인 입국자 전원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외국인들이 해외입국자 교통수단 안내를 받고 있다. /뉴시스

부산 옛 미군부지 토지정화 체육공원 만들어 '시민품에'

국토부 등서 82억 받아 복원추진
테니스장·게이트볼장 등 조성키로

부산시는 지난 1973년 4월 미군에 공여돼 재활용품 적치·폐품소각장 등으로 사용됐던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미군군수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DRMO) 부지의 정화작업을 마치고 체육공원 조성 공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중금속, 유류, 다이옥신(1급 발암물질) 등에 의해 오염된 채 9년 동안 방치돼 있었는데 이번에 부산시와 부산진구, 토양정화 민·관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치로 토양환경 복원을 이뤘다. 과거 미군 재활용품 및 폐품소각장 등으로 사용됐던 이 부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82억원을 받아 복원을 추진했다. 특히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다이옥신(1급 발암물질) 정화에 열탈착공법을 적용해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와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018년 9월 토양정화에 안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토양환경분야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공무원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총 14차례에 걸쳐 효율적인 정화방안, 검증방법, 감시 등의 협의와 자문을 통해 토양정화사업을 진행했다.

총 8615㎥의 오염토양을 굴착 정화 완료했는데 TPH(석유계통탄화수소), 중금속 5종(카드뮴, 납, 구리, 아연, 크롬6가),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중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은 정화 이전 536 pg-TEQ/g에서 환경부 권고기준인 100pg-TEQ/g 보다 훨씬 아래인 43.8 pg-TEQ/g으로 낮춰 인체에 최소한의 피해도 없도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를 감수한 데 따른 다소간의 보상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일부 부지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장성에 주상절리… '경관폭포' 변신

4만3862㎡ 규모, 나무 500주 심어
붕괴위험 차단, 운동기구 등 설치

장성공원이 수려한 경관폭포와 아름다운 조경을 갖추며 새롭게 태어났다.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일원에 자리잡고 있는 장성공원은 읍시가지 내의 유일한 공원이다.

1977년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면적은 4만3862㎡(1만3291평)에 달한다. 소나무와 느티나무, 산벚나무 등의 나무 500여 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운동시설과 정자, 어린이생태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여가생활 장소와 쉼터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열사장성의적비, 6;25참전용사기념탑 등이 있어 매년 각종 역사적인 기념식이 개최되고 있다.

장성공원이 수려한 경관폭포와 아름다운 조경을 갖추고있다.

그러나 이곳은 급격한 경사면을 지녀, 지난 2015년 공원 서편의 사면 일부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듬해인 2016년, 장성공원은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장성군은 2017년부터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들어가 최근 공사를 완료했다. 현재 주변 정리 작업을 실시 중이다. 군은 420m의 급경사 구간에 식생블록 등을 쌓아 붕괴 위험을 차단했다. 또 공원 전면부 경사면에는 경관폭포를 조성했으며 주변 운동기구와 계단, 산책로 등도 이용하기 편리하게 정비했다.

특히, 웅장한 규모(24m×13m)를 지니고 있는 경관폭포는 선비의 절개와 기상을 뜻하는 주상절리와 황룡강의 맑은 정기를 상징하는 폭포로 구성해, 황룡강과 함께 장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부산시, 마리나 전문인력양성사업 추진

부산시는 중소조선연구원과 함께 마리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마리나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는 2022년까지 3년간 2억7000만원(시비 1억3500만원, 민자 1억3500만원)을 투입해 매년 4개 강좌, 연인원 40명의 마리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마리나 산업 필수자격 획득과 산업체 현장연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취업과 창업이 촉진할 계획이다.

시는 마리나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장비, 운영진, 강사를 갖춘 중소조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한국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영산대학교, 요트수리정비조합,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1단계 사업을 통해 총 397명이 과정을 수료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지역경제 활력'

상반기 1천억대 관련 공사계약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1천억대 공사 계약이 이뤄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2일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착공한 2호선 건설 공정별 사업이 추진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천73억원 규모 공사계약이 체결됐다.

토목, 구조물, 지반보강, 조경, 지장물 이설 등에서 주요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철강, 복공판 등 건설자재와 굴삭기 등 건설 장비를 투입하고 현장에는 지역 인력을 우선 고용하고 있다고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전했다.

착공 후 현재까지 고용된 연인원 4천853명 가운데 지역 인력은 4천698명, 지역 장비 사용도 1천970여건으로 집계됐다.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지난해 2호선 1단계 시공사 6개 업체와 광주 업체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상향, 자재·장비사용 활성화, 지역민 우선 고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2호선 건설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는 시청에서 월드컵경기장, 백운광장을 지나 광주역까지 약 17㎞ 구간으로 본선·정거장 20개·차량기지 1개 등을 만드는 데 2023년까지 5685억원이 투입된다. /광주=김태수 기자

전남지방우정청

우럭양식어민 판로지원

전남지방우정청은 전남도·여수시·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과 함께 소비침체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우럭 양식 어민 판로지원을 위해 우체국쇼핑 어민 돕기 추진을 통한 온라인 판로 개척에 나선다.

12일 수협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식당납품 및 관광객 감소로 우럭을 제때 판매하지 못해 늘어나는 사료값으로 양식 어가들의 시름이 깊다고 한다. 이에 전남지방우정청은 7월 13일부터 우체국쇼핑몰에서 반건조 우럭 2마리(400g이상)를 9900원에 판매하는 기획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7월 20일부터는 우체국쇼핑 연계채널(이베이, 11번가, 카카오 등)에서도 동일한 특가전이 진행된다. /전남=김태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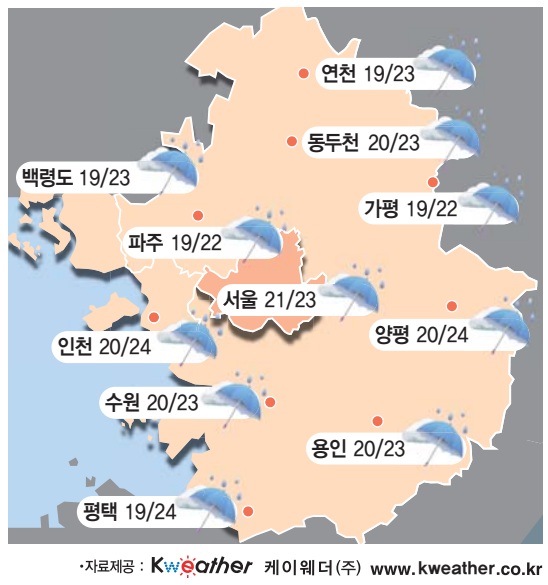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5:21 | 해짐 / 19:54

7월 13일 (月)
음력 : 5월 23일

수도권 날씨 21~23℃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